

국립수목원, 연천·철원 DMZ 식물 총망라한 도감 발간

등록 2022-02-09 오전 11:33:37

수정 2022-02-09 오전 11:33:37

정재훈 기자

'DMZ 접경지역의 식물'

[포천=이데일리 정재훈 기자] 비무장지대(DMZ)에 서식하는 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.

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경기 연천군, 강원 철원군과 공동으로 DMZ 등 접경지역의 식물 정보를 담은 'DMZ 접경지역의 식물'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.

발간등록번호
11-1400119-000430-01



A border barrier with thriving nature

DMZ 접경지역의

식물 VI

Flora of DMZ VI

연천군
YEONCHEON



'DMZ 접경지역의 식물' 연천군 편 표지.(사진=국립수목원 제공)

이번에 발간되는 철원군과 연천군의 식물도감은 국립수목원이 2016년부터 추진한 비무장지대(DMZ) 및 접경지역의 식물 다양성 조사 결과로 2019년 강원 고성군을 시작으로 내놓은 접경지역 별 DMZ 식물 정보 도감의 다섯, 여섯번째 결과물이다.

'DMZ 접경지역의 식물'은 접경지역 별 자생식물 목록과 중요 식물에 대한 형태 및 분포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접경지역 식물의 보전을 위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훼손지 복원을 위한 자생식물의 안내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립수목원은 내다 보고 있다.

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"DMZ자생식물원을 거점으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은 물론 통일에 대비한 북한식물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